

사고방식의 차이



김규복
(본회 부산지회장)

뭐든지 잘하는 만능인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 직장에 다니면서도 계속 공부하고 해외 여행 계획까지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일 집구석에 틀어박혀 있으면서도 근교에 바람 쐬러 나갈 시간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가?

전자는 천성적으로 잘난 인간이고, 후자는 약하고 게으르며 성격이 원만치 않도록 태어났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 가장 큰 차이는 생각하는 방법의 차이. 물론 전자는 이것저것 일을 벌이고 바쁘게 뛰어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외형적인 성격의 소유자인 반면, 후자는 혼자 사색하는 것을 즐기는 내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보이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외에도 이런 극단적인 차이를 벌이는 데 한몫 하는 요인이 있다. 바로 사고방식의 차이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전자는 '할 수 있다' 형이고 후자는 '할 수 있을까?' 형이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이와 '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이 사이에는 엄청난 수준 차이가 존재한다. 망설이고 의심하는 시간동안 그는 그만큼의 가능성과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발명의 세계에서는 이 의심의 차이가 불러오는 간격이 일의 성과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창조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처럼 바보스런 일도 없다.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을까? 창작이란 특별한 사람이 하는 특별한 행위가 아닐까?”

자신을 스스로 무력하게 만들고, 창작의 영역이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성역이나 되는 듯이 두려워 하는 이

들. 창작정신을 아인슈타인이나 미켈란젤로 같은 천재가 대대로 비밀리에 숨겨가며 전승하는 전유물처럼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창작을 남의 일쯤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발전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은 자신의 안에 숨어있는 창의적 능력을 평생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무덤에 들어가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누누히 강조하여 왔지만, 창작은 넘을 수 없는 금단의 땅에 열리는 금사과가 아니다. 오히려 길 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맹이와 같은 존재라고나 할까?

문제가 되는 것은 창의적 능력이 아니라 이를 끄집어내는 훈련과 노력이다. 아무리 흔한 돌맹이라고 해도 관심이 없으면 하나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관심이 없다면 창의적 능력도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사원의 창의력과 성취욕에 관심을 가지는 추세를 보인다. 잡다한 지식을 많이 아는 이보다 창작정신이 투철한 이에게 점수를 더 주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굴지의 한 석유회사에서는 심리학자가

